

후천적 장애인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헌경*, 문정인**, 유두환***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양산부산대병원 작업치료실

***전북대학병원 작업치료실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후천적 장애인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성과의 관계 맺기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한 내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후천적 장애인들의 경험과 감정,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 현장 기록, 기술적 관찰 일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대상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성과의 관계 맺기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상자 8명의 심층 면담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6가지의 주제 모음 1) 진단에 대하여 다양한 심리적 반응 2) 보호자 및 이성의 다양한 심리적 반응 3) 적극적인 지지를 통한 재활 의지 변화 4)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사회성 결여 5) 재활을 통한 자신감 변화 6) 이성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도출되었다.

결론 : 본 연구결과는 후천적 장애인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감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유용하다. 이성과의 관계 맺기는 다른 어떤 사회 속에서의 상호 작용하는 행위보다 의미가 있다. 관계 맺기 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제어 : 이성 관계, 작업치료, 현상학적 이론, 후천적 장애

I. 서론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태어나며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성장, 발달 및 자아실현의 원동

력인 동시에 성숙시키는 힘으로, 여기에는 5개의 생득적인 욕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기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된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경로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소속감, 사랑의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 욕구는 선천적 성적 욕구와 감각적인 욕구로서 인간의 성(sexuality)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지승훈, 2002에 인용됨). 생물학적 성(sex)을 의미하는 것은 본질적 관점에서 보는 섹스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성은 성기 중심적인 관점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하지만 성이라는 측면에서 육체적 측면이 중요하지만, 감정이라든지 의지 혹은 행동방식과 같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도 포함되는 남녀 간의 때로는 동성 간의 육체적 사랑, 에로스(성에), 육체적 접촉욕구, 관능적 쾌락, 욕망, 감각적, 감성적인 친밀성 등 인간사이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용어들을 포괄하는 총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또 하나의 문화동인, 1991). 사회학에서 성별(Gender)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좁은 의미의 성 관계와는 구분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전병진, 2007).

성별(gender)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을 의미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이런 이성간의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형성은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어 작업치료 영역(domain)에서 매우 중요하다(Burton, 2006). 모든 인간은 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장애인도 역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성행위가 단순히 육체적 또는 생리적 행위가 아니고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행동이라 한다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장애인도 이러한 성적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조자, 유지수, 박지원과 이영란, 1985). 하지만 장애인은 매력이 없거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들과 감정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친밀해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통념이 장애인 본인과 친구, 친척들을 자포 자기하게 만든다(Burton, 2006). 이로 인해 결국 장애인들은 이성간의 관계에서 매우 위축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성적인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의 성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익섭과 이영미, 2003), 성 재활 교육이 척수장애인의 성 지식과 성 적응에 미치는 효과(김은경과 이향련, 2000), 장애인의 성(性) 재활(이범석, 1999) 등 장애인의 성(sex)에 관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내 연구는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Miller(1998)의 연구에 의하면 성 재활이란 남녀 간의 신체적인 성기의 결합만이 아닌 부부간의 대화를 통한 정신적인 만남을 의미한다고 한다. 기존의 성 재활이 신체 중심적인 접근이었다면 본 연구는 장애인이 경험하게 되는 이성과의 감정적 교류이다. 감정은 그 특성상 다양성, 사회성, 복잡성, 환경, 문화,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 속에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적 변화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사회 속에서 통합되어 생활을 할 때 후천적 장애로 인한 현재 모습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내부자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작업치료 영역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한 영역인 장애인의 성 재활과 이성 관계를 중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현재 대전에 위치한 E 대학병원에서 작업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 표본 추출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론적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

을 통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이성에 대해 갖게 되었던 본인의 감정표현이 가능한 사람들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MMSE 25점 이상이며, 연령은 만 24~61세까지이고 본인의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표 1).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추후 면담을 실시할 때는 연구자의 사적인 견해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며 질문을 하였다. 될 수 있는 한 연구자의 편견이 배제된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을 하였고 참여자의 대답에 대한 공감적인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2. 연구 방법 선정 이유

김천배(2000)의 책에서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사람이 대상을 알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알 수는 없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개방성, 참여 그리고 공감을 필요로 한다. 즉, '현상학은 일상생활을 개인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기 위해 개인들의 인식 영역을 공감함으로써 개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작용 한다'라고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E	사례 F	사례 G	사례 H
성별	여	여	남	남	여	여	남	남
연령	만29세	만26세	만24세	만39세	만61세	만31살	만40세	만44세
결혼	기혼	미혼	미혼	기혼	기혼	미혼	기혼	기혼
직업	가사	사업운영	사업운영	중장비	가사	무직	회사원	사업운영
간병인	없음	부모	간병인	없음	배우자	없음	배우자	간병인
발병 기간	60개월	24개월	3개월	2개월	10개월	4개월	8개월	8개월
진단명	모야모야	뇌종양	외상성 뇌손상	척수 손상	뇌졸중	세포 염증	척수 손상	척수 손상
MMSE-K	27	28	26	30	25	30	30	30
우울증여부	무	유	유	무	무	유	유	유
MBI	100	82	61	100	96	82	94	75
Purdue Peg (Rt/Lt)	9/11	10/5	3/2	11/13	8/5	9/13	5/4	1/0
Box& Block (Rt/Lt)	38/45	42/26	9/5	39/51	40/31	33/47	25/19	5/2
Comment	Rt, paralysis dys- arthria(±)	Facial palsy Lt.hemi- plegia	Facial palsy para- plegia	C7. ASIA D	Facial palsy Lt.hemi- plegia	Lt, para- lysis	C7. ASIA D	C7. ASIA D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현상의 본질적인 모습과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정 현상과 관련된 인간 상황의 생생한 경험이 가지는 성질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본 연구의 후천적 장애인 이성과과의 관계 맺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이금진, 2007).

이런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에서 Colaizzi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장애인을 단편적인 관점이 아닌 총체적인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Colaizzi(1978)는 메를리 폰티(Merleau-Ponty)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로서 인간을 다루는 심리학은 자연과학의 방법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인간과학에서는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조홍식, 정선욱과 김진숙, 2005). 즉 현상이 드러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실제현상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는 것이다(이연선과 윤정혜,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후천적 장애인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감정변화는 인간의 총체적인 이해에서 다루어져 한다. 이 방법은 주체의 관점을 서술한 것 중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묶어 추상화시키고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다(김은영과 이명선, 2000). 이를 통하여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적 심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작하여 10월 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고 이성에 대한 만남 및 감정 변화를 경험한 환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각 참여자에 대해 1회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면담은 녹음 없이 치료 회기 동안 3-5회기 정도 더 진행되었다. 관찰 동

안 오디오 녹음과 함께 맥락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상세히 담아내기 위하여 현장 기록과 기술적 관찰일기를 병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녹음 없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치료 회기 마다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시행에 앞서 연구의 내용과 진행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으며, 심층 면담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이 원치 않을 경우 언제나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에만 사용하였으며 참여자와 관계되는 고유 명칭이나 개인적인 인격 노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 참여자의 신상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김슬기, 2009).

4.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먼저 참여자들과 진행한 면담기록으로 인해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해 읽으면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개념을 이끌어내었다. Walcott(1994)의 연구(이경희, 2006에 인용됨)에 의하면 질적 연구에서의 분석은 “질적 연구의 양적, 과학적 측면”이며 기술과 분석이 자료를 변환하는(transform) 작업이라고 한다면, 해석은 자료를 초월하는(transcend) 작업이라고 보았다.

실제적으로 기술과 분석, 해석을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방법론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술이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 (know) 하는 일”이며,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분석은 기술을 구조화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인 동시에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과 분석은 자료에 충실해야만 한다(이경희, 2006). 또한 Colaizzi는 연구자가 기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의미적인 방법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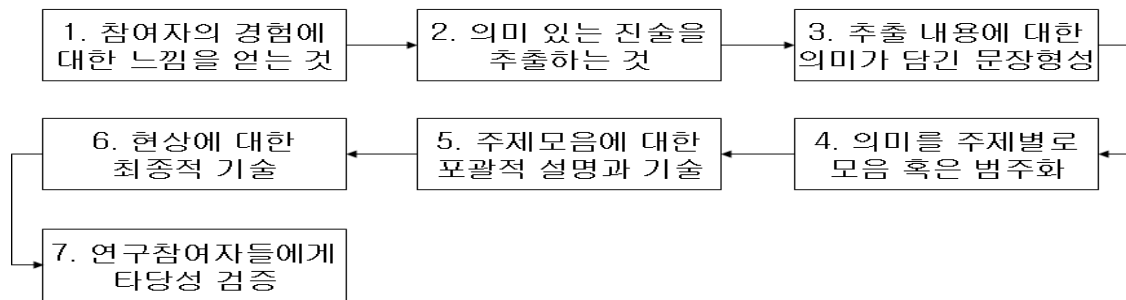


그림 1. Colaizzi 자료 분석 7단계

인간 내면의 심리적 현상을 접할 수 있는 7단계의 연구 절차를 제시하였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Colaizzi의 분석방법에 따라 7단계를 거쳐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심리학이 행동을 예견하고 통제함으로써 현상들을 의미적으로 연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연구자가 의미적인 방법 속에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접할 수 있는 연구 절차이다(권길자, 2007). 1단계는 의미파악을 위한 독해 부분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 느낌을 얻기 위해 필사된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은 후,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였다. 2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을 발췌하는 부분으로 독해를 통해 원 자료들의 의미를 파악한 뒤,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였다. 3단계에서는 진술된 것의 재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로 2단계에서 도출된 재 진술들로부터 의미가 담긴 문장으로 형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주제 군을 작성하여 연구자가 형성된 의미들의 종합으로부터 공통된 주제를 찾아내어 이를 원 자료와 일치 또는 불일치여부를 관심 있게 관찰하였다. 또한, 제 3단계에서 재 진술된 것들을 가진 채로, 1,2단계의 것들을 다시 비교 독해를 하면서 공통된 것을 모아서 주제군(cluster of themes)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의미를 6개의 주제모음으로 범주화하였다. 5단계에서는 참여자 경험의 주제별 정리를 하였다. 형성된 주제군에 따라서 주제를 배열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연구자는 주제에 따라 나타난 감정적 표현, 변화와 느낌을 사실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와 주제모음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하면서 경험의 전체적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기술 하였다. 6단계에서는 현상학적 글쓰기 단계로 연구에서 파악된 사항들을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7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술한 내용이 타당한지 검증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기술한 결과를 갖고 의미를 파악하여 잘못 표현되어 제 3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 까지도 찾아서 수정하였다. 이 방법은 참여자의 기술을 읽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이끌어내어 명확하게 밝힌 의미들을 주제들의 무리들로 묶은 후, 조사된 현상을 기술한 후 참여자가 제시한 기술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신경림,2004).

5. 연구의 엄격성

신뢰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Guba와 Linclon(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상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녹취 내용에 대한 연구 참여자 검토를 시행하였고, 연구 자료에 사용된 문장과 표현에 대한 내용 점검을 시행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의도에 맞게 내용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분석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범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결혼여부, 발병 시기 등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구체화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고, 모든 참여자들의 일련의 의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공통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간 확인은 연구 내용에 대해 경험 있는 동료 작업치료사와 질적 연구자들에게 동료 보고(Peer debriefing)를 시행하였다(김슬기, 2009). 또한 질적 연구자인 선행자에게 연구 보고 및 조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구 내용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연구의 중립성을 위해서 후천적 장애인의 이성 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지식, 믿음, 판단, 개인적 이론이나 편견, 현재의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인 괄호 치기를 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의 이성에 대한 감정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8명의 대상자들을 심층 면담한 자료를 Colaizzi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가지의 주제 모음이 도출되었다.

1) 대상자들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후에 본인의 진단에 대하여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보였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일반인들이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볍게 여겼던 증상 또는 수술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대상자들은 진단을 받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조용해지는 성격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는 우울, 죽음 등 사고나 수술 직후 자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 했었으나, 시간이 지난 후 장애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비참하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셋째는, 평소와 같은 심리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면서 덩덤하게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금의 증상이나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생활하기도 하였다. 재활의 속도가 빨리 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초조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격은 밝고 명랑했었어요. 그런데 사고 이후로 말이 없어졌죠.....사고 당한 이후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 제 자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충격이었어요. 글씨가 하나도 안 써지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글씨가 빠떨어지고.....그때 생각하면 막 머리 아파요.

그때 몰랐어요. 내가 걸을 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이렇게 될 봐야 차라리 눈 안 뜨고 그냥 죽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낫나 하는 그런 두려움? 뭐 이런 거였죠.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면 답답함.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참 비참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제가 처음에 다쳤을 때 길거리 먼저 누웠을 때 제일 처음 생각났던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었거든요? 우리 가족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5분쯤 지나니까 제 자신이 생각나더라고요. 나 억울해서 앞으로 세상 어떻게 살지?

사실 지금 제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막상 제 생각을 해 보면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오히려 감정 변화 폭이 줄었죠. 전에는 웃고 그런 거에 민감했는데 지금은 민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도 많이 기울이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2) 대상자들의 장애에 대한 보호자 및 이성들 역시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보였다.

대상자의 소식에 이를 안타까워하며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하고 마음 아파하던 이성이 있었던 반면, 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나타내고 장애를 갖게 된 배우자 및 이성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혼일 경우 대부분 미혼일 경우 보다 곁을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시기도 길었으나, 미혼에 나이가 어릴수록 곁을 지키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호자 및 이성들은 대상자의 진단에 초반엔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서며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반응을 보였으나, 병원에 있는 시일이 길어질수록 재활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이들이 늘어났다.

대상자 스스로가 진단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때 보다 보호자 및 이성에 대한 반응을 대상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호자가 처음에 비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눈치를 보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려도 주로 참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처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챙기지 않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되었을 때, 더 많이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아무리 안 좋은 모습 보여줘도 내 여자 친구는 내가 지켜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데요. 차타고 내려가면서 혼자 울고 그랬데요. 내려가는데 죽겠더라고요.

제가 살이 굉장히 많이 찼었어요. 근데 그걸 엄청 싫어했어요. 저한테 '안타깝다, 빨리 나아라.' 그런 말 했던 적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병원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그 남자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크게 되었나 봐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핑계대고 하는 것 보다 .그렇게 스욕 가버린 것도 어쨌면. 나올지도 몰라요. 안 그랬으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만 해도 측은해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혹 덩어리 같이 모든 걸 다 도와줘야 하니까. 사소한 것도 전구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제가 못 해 주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거 별로 없죠.

수술 하고 퇴원하고 나서 한참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백통 넘게 연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가보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 발견을 했죠. 직장에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땐 말도 잘 못 했는데. 말을 못 하니까 막 때려 부수고.있는 거 다 때려 부수고.사람들 밖에서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3) 대상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록 재활에 대한 의지가 커졌으며, 특히 배우자 및 이성에 대한 지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진단을 받은 이후 힘들어하거나 심리적인 감정변화를 이겨내는 데 있어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 특히, 배우자 및 이성 친구에 대한 지지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보호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배우자 및 이성에 대해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상자들의 경우 평소에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고 집사람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죠.

신랑은 내가 마음 아파할까봐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심지어 반찬까지. 전부해서 나한테 해서 갖다 바치고 내가 조금이라고 우울해 할까봐 내 앞에서 코미디언처럼 해서 막 웃기고 그래요. 이정도 인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여기고 너무 적극적으로 대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예요. 한결 같고 오히려 더 잘해주죠. 지금은, 내가 아프고 나서 훨씬 더 잘해주요. 신양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자기 마음을 다치고 날 우울하지 않게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에요.

다치게 전에 저만 알고 그랬는데, 다치니까 가족이 좋긴 좋구나,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없으면, 아마 그냥 누워있었을 것 같아요.

여자 친구에게 이 모습 보이기 싫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속상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해해 주고 하니까 고마워요.

강원래가 장애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송이가 많이 해줬잖아요.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저는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그런 것은 못 느끼겠어요. 예전 생각하면 그냥 추억 같아요.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추억 같은 정도로 느껴져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근데 남편이 지켜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떠났다면 상실감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은 항상 저한테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나. 너는 왜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나.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다 하라고 .그럼 전 귀찮으니까 짜증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생각하는 거지만 아.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느끼는 거죠.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걸 새삼 느끼는 거죠.

4) 장애를 갖게 된 이 후 사회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배우자 및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입원 또는 외래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대부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예전처럼 대화하고 만나며 좁거나 혹은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었으나, 유독 이성에게 만큼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상자 스스로 이성을 만날 때 위축이 되거나, 이성에 대해 감정적으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거나, 자신감이 없어 만남을 꺼려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예전에 비해 기대는 더 없어. 남자를 만날 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더 없어. 괜찮은 놈들은 갈 데 다 갔어. 100% 없어. 내 생각은 그래 상대가 기대를 하거나 말거나 난 별로 관심 없어. 아프기 전이랑 거의 다를 것도 없고 똑같네.

사고 전엔 100% 완벽했는데 사고 후에는 수술 부위라든지 상처가 크게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 거리감 느끼죠. 감추고 싶은. 그런.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나니까 남자를 못 믿겠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나아도 나중에 내가 또 아팠을 때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또 떠나지 않을까? 정말 천사가 아니라면 가족이외에 나한테 남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성을 만나는 걸 조금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만나고 쉽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자신 있게.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졌어요. 창피하고 그런 것이 생겼어요. 그게 말도 못하고 걸지도 못 하고. 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대인관계 쪽으론 없었는데 아무래도 와이프한테는 감정적으로 변화가 왔지. 일단 가장 중요한건 자신감. 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현재 사고 난 거에 대한 불확실. 또 그리고 우리 와이프에 대한 의심. 의처증 비슷한...... 의처증이심해지니까 자신감도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았는데 유독 와이프에게...... 그랬어요. 와이프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감정 변화를 안 느꼈어요.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를 수 없잖아요. 와이프한테는 그게 잘 안되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써 오랫동안 통한 사람인데 그게 잘 안되잖아요. 한 순간에 끊기 어려운 상대니까. 상처가 길면 힘들잖아요. 둘이 서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거. 전에 같으면. 건강 했을 때는. 내가 맘에 들면.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맘에 든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표현하고 만나고 잘 되게끔 하고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리고 또 만약에, 설사 정말 그 사람도 정말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을 알아볼 방법도 없고. 내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누구든 간에 재가 왜 저러지 내가 너무 친절히 대해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서 너무 무섭고 자기주제도 모르나봐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5) 대상자들은 재활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본인의 건강이 좋아질수록 자신감을 되찾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상인의 모습과 똑같아 지지 않더라도 처음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된 모습을 느끼고 스스로 좋아지며, 재활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자신감을 되찾아가기 시작하였으며,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활의 속도가 빨라 비약적인 변화를 보였던 대상자들은 더 빠른 속도로 감정변화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활이 진행되기 전의 모습을 회상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점차 더 놓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생각을 주제 모음으로 나타내게 되면서 자신감 혹은 변화에 대해 언급하게 된 대상자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깐. 근데 내가 사고 초반엔. 거의 극 상황까지 그랬지.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거기에 더 자신감을 얻고 그러는 것 같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는 것과 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아프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왔죠. 아플 땐 열등감 굉장히 심했는데……. 불편한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 좀 있지만 많이 좋아졌으니깐 이제 그런 건 많이 없고.

조금씩 나아지니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비우고 있어요. 전에도 다 나왔어도 왼손은 불편하고 그랬으니깐. 근데 일상생활은 잘 되면 좋겠어요. 너무 나중에 상처받기 않기 위해서. 조금만 나아져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6) 대상자들은 장애에 대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성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경우 장애가 지속되고 후천적으로 본인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성을 대하는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준 배우자가 본인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혼자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고, 배우자에게 더 신경써줘야겠다는 생각, 헤어짐을 선택했던 예전 이성 친구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재활 초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하여 적응하는 동안 병에 대한 생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과 달리 점차 다양하게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를 인정하고 난 후 이성에 대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생각을 주제 모음으로 나타내게 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한 대상자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지금도 내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고, 좋은 기분은 아니죠. 그런데 당연히 떠나보내야 할 것 같아. 떠난다고 하면 또 나 몰래 떠나도 인정을 해 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채워줄 수 없는데 내 욕심 때문에 붙잡아 놓을 수는 없잖아. 많이 슬프고 화가 날 것 같아. 만약에 떠나게 되면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인정해도 속으로는 많이 속상할 것 같아.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나면요. 남자친구. 남편은 남이잖아요. 근데 그냥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 한 명만 데리고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는 혈육이니깐. 내가 이래도 내가 엄마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부인에게 당연히 잘해야겠다. 그리고 아 이게 서

로 잘해 줘야겠구나. 그리고 막상 극한 상황에 가게 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배우자야 자식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해는 되요 나도. 저 남자애가 나처럼 되었다고 하면 나 또한 뒤도 안돌아보고 안 만나겠지 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나이를 봐요. 앞으로 살려는 날이 더 많은 데.

IV. 고찰

본 연구에서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심층면접을 시행한 결과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애로 인해 장애 당사자가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과 자신감 상실이다. 둘째는 외부의 이성 장애를 가진 본인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변화이다. 셋째는 장애로 인해 이성과의 관계 형성에서 나타나는 새롭고 낯설음이 존재하지만 적응하게 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장애 당사자가 경험한 심리적인 갈등과 자신감 상실을 살펴보았다. 인간에게 있어 이성 관계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여 이성 에 대한 정서적, 성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남녀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사귀는 것을 의미 한다. 한 개인의 발달과정상의 단계로 결혼을 목적뿐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터득하며, 이성 에 대한 흥미를 충족시키고, 인간관계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김인희, 2004).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남녀에게 이성 파트너는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갖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들 중의 하나이며, 의미 있는 타인은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성간의 관심의 방향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몸에 기호화되어 있는 여성, 남성 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로 인해 충분한 이성과의 교제를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성애제도 내의 이

성 관계에서 일반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이성애 틀 속에서 배제된다(박하연, 2004).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이성 관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심리적으로 겪었던 다양한 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대상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겪어 보지 못 한 미묘한 부분에서도 심리적 갈등을 겪었으며, 사소한 부분에서도 큰 감정 변화를 보였다. 즉 배우자에 대하여 극도로 불안한 감정을 지니고 있어서 아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초기에는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걱정하고 찾았으며, 거친 말들을 많이 하였다. 이는 경수척수 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를 한 전병진과 김슬기(2007)의 결과에서도 재활 초기에 부인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욕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게 되는 경우와 일치하였다. 이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함께 나타나는 이중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인간에게 이성교제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와 생리, 역할 등 이성이 지니고 있는 여러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시야를 넓혀주는 방법이다. 건전한 이성교제는 이성과의 적응방법을 배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사회화의 기능을 증진하게 한다. 그리고 이성과의 교제를 할 때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박은영, 2003).

이에 반해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성 관계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작업치료에서 이성 관계는 인간 작업의 외부에서 영향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사회적 지지 그룹이 사회적 생활의 가치와 즐거움,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Kielhofner, 2008). 따라서 작업치료사가 장애인의 이성관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한 중재를 해야 한다.

장애를 갖게 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외부의 이성들의 경우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 및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대상자의 곁을 지키거나, 혹은 떠나거나 곁을 지키면서도 힘들어 하거나 언제든 떠날 지도 모른다는 의사를 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변화된 감정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이성 관계를 잘 발전하지 못하고 작은 원인으로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인 관계 측면에서 갈등이란 양쪽의 교류에서 한쪽의 활동이 상대의 활동과 조화되지 않거나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이 불리하게 여겨질 때 발생하는 사건으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다(김나리, 2002). 갈등은 대인관계 속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일상적인 관계보다 더욱 친밀한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갈등의 발생 여부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갈등이 많으면 두 사람 관계에서 사랑이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갈등이 잘 해결되면 만족도가 커진다는 결과를 보여 주며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중요함을 입증하였다(정민, 2006).

Cramer(2000)의 관계 만족과 갈등대처 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갈등해결방식은 관계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나 소극적 대처는 이성 관계 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이성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이성적인 대처를 할수록 이성 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성 관계에서의 갈등관계를 전문가들의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재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갈

등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로 인해 이성과의 관계 형성에서 나타나 는 새롭고 낯설음이 발생하지만 적응하게 된다.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는 초기의 쇼크와 공포 반응에 뒤이어 상황의 부정,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단체를 화나게 하거나 마침내 장애로 인해서 갖게 되는 우울, 그리고 수용과 적응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Morse & O' Brien, 1995). 이렇듯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서도 이런 단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장애를 갖게 된 후 스스로의 상황에 놀라고, 우울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상대방 이성과의 헤어짐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고, 사고 이후 본인의 변한 모습에 힘들어하였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누그러진 태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후천적 장애인의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장애인을 중재하는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치료사, 의사, 간호사, 보호자들의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양한 연령대 및 기혼, 미혼의 환자들이 대상자로 표현되어 세부적인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성격 및 성향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부족하였다.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수많은 장애인에게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이성과의 관계 형성에서 관계 맺기가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다. 장애인의 이성 관계는 성공적인 사회재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변인을 구성하여 이를 양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치료의 주제라고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후천적 장애인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 현장 기록, 기술적 관찰 일기 등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상학적 분석 방법의 하나인 Colaizzi 방법에 따라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결과 후천적 장애인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감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 하게 되었다. 이성과의 관계 맺기는 다른 어떤 사회 속에서의 상호 작용하는 행위보다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성과의 관계는 성적인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재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성이라는 것을 일상생활동작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성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각자 이성과의 관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적절한 관계 맺는 기술은 지역 사회로의 복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재활 전문가인 작업치료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맺기 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슬기. (2009). 다시 만드는 새로운 일상-노인 주간보호(adult day-care) 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2), 41-53.
- 김언희. (2004). 기독교대학생의 이성 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김은경, 이향련. (2000). 성 재활 교육이 척수장애인의 성 지식과 성 적응에 미치는 효과. 재활간호학회지, 3(2), 127-140.
- 김은영, 이명선. (2000). HIV 감염자의 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2(4), 497-506.
- 김조자, 유지수, 박지원, 이영란. (1985). 하반신 마비 환자의 성 재활에 대한 연구. 간호학논집, 8, 1-26.
- 김천배. (역) (2000). 나와 너. 서울: 기독교서회.
- 또 하나의 문화동인. (1991). 새로 쓰는 성 이야기.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박은영. (2003). 이성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이 연인 간 의사소통과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서울.
- 박하연. (2004). 성별/성 체계에 기반한 뇌성마비 장애여성의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경희. (2006). 홀로된 성(性)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성욕 표출과정에서 성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이금진. (2007). 정신장애인의 취업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법석. (1999). 장애인의 성(性) 재활. 재활간호학회지, 2(1), 109-119.
- 이연선, 윤정혜. (2006).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유아의 성에 따른 또래 놀이문화. 유아교육총론, 15(2), 177-194.
- 이익섭, 이영미. (2003). 장애인의 성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20대 미혼 장애인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 연구, 9, 69-81.
- 전병진. (2007). 작업치료와 사회학. 서울: 정담.
- 전병진, 김슬기. (2007). 경수5번 손상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4), 105-116.
- 정민. (2006). 이성교제 시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이 갈등대처방식과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부천.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2005).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학지사.
- 지승훈. (2002). 정신지체인의 성지식 및 성적 태도와 시설 종사자의 성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전대학교, 대전.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동녘.
- Burton, G. U. (2006). Sexuality and physical dysfunction. In H. Mc. Pendleton & W. Schultz-Krohn. *Pedretti's Occupational Therapy*(6th ed., pp. 248-263). St. Louis: Mosby.

- Colaizzi, F.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R. S. Valle, & M. King(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1.
- Guba, E. G., & Lincoln, Y. S.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Kielhofner, G. (2008). The Environment and Human Occupation. In G. Kielhofner. *Model of Human Occupation*(4th ed., pp. 85-100).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Miller, S. B. (1998). Spinal Cord injury: Self-Perceived sexual information and counselling needs during the acute. *Rehabilitation Psychology, 33*(4), 221-226.
- Morse, J. M., & O'Brien, B. (1995). Preserving self: from victim, to patient, to disabled person. *Journal of Advanced Nurse, 21*(5), 886-896.

Abstract

Phenomenological Study on Relationships of People with Acquired Disability with the Opposite Gender

Park, Hun-Kyung*, M.Sc., O.T., Moon, Jung-In**, M.Sc., O.T.,
Yoo, Doo-Han***, M.Sc.,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Yangsan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understand the emotions of disabled in starting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gender and disclosing experienced events related to starting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gender.

Methods : In order to gain an understanding of experience, emotions and process of people with acquired disability, phenomenological study, a form of qualitative research was used. Data on subjects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n-the-scene recording and technical observation diary, etc and were analyzed through Colaizzi'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Results : Subjects who had acquired disabilities experienced changes in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spects and especially in the course of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gender.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of 8 subjects were analyzed 6 types of subject themes were derived. 1) Diagnosis of varying psychological reactions. 2) Various psychological reactions of parents and the other gender. 3) Through aggressive support rehabilitation volition will change. 4) After you have a disability as a lack of social skills. 5) Changes in confidence through rehabilitation. 6) the other gender for the different ideas.

Conclusion : This research is valuable in presenting important data in understanding problems and emotions of relationships of people with acquired disabilities with opposite gender. Starting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gender has more meaning than any other interacting activities in society. Conflicts exist in starting relationships and support programs for various specialists are indispensable.

Key words : Acquired disability, Occupational therapy, Opposite gender, Phenomenological theory.